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

박찬모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인 duckhwan@sogang.ac.kr

Q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새 정부의 행정부, 청와대 및 국회에 과학기술계 인사가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대로 초대 교과부 장관에 과학기술계 인사를 임명하셨는데 불행하게도 도중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보에 임명되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사이의 통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Q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직접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시게 됩니까?

대통령 과기특보의 역할이 성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조직도 없는 자리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기술계의 요망사항을 대통령께 전해 드리고,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대통령께서 과학기술계와 소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원로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마련을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교과부, 지경부 등의 협조를 얻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기자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철학이 잘 전달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상당하십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할 때 많은 분들은 과학기술부가 없어진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초·중등 교육을 과감히 지자체에 이전시키면 대학의 고등교육, 기초연구 등이 과학기술 연구와 본격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도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정통부 일부와 산자부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관할하던 민간기업 관련 업무는 많은 부분이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기업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Q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하던 일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국과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의 컨트롤 타

워로서 특히 국과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전문 분야별 나눠먹기를 지양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만을 위해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종합조정기능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연구회와 출연연 기관장의 일괄사표 제출과 통폐합 소문으로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특보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로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나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한 교육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소의 통합설로 시끄러웠습니다만 과거 KAIST와 KIST 합병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교훈삼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과학기술정책이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었고, 기재부의 통제도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부처는 교과부와 지경부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습니다. 모두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재부도 국과위에서 결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민간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 기업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공약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Q 새 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2008년 8월 12일 국과위에서 통과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MB 577 전략'을 보면 2012년까지 총 R&D 투자액을 G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4분의 3 (3.75%)이 민간투자 부분으로 막대한 액수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 부처에서 다루리라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기업

Interview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하신 공약이 지켜진다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Q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50%를 기초원천 연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기초원천 연구’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교육과학부’로 개편한다 할 때 많은 분이 ‘기술’이 빠졌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은 영어로는 처음부터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로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technology는 원천기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 후 한글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되면서 교과부가 기초과학뿐 아니라 원천기술 연구도 관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출연연 등에서도 얼마간의 원천연구를 하기 때문에 R&D 예산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 봅니다.

Q 과학기술 분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국이 부럽습니다. 지금 중국은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계 인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계 인사를 유치하고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인의 노후 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낮은 정년 연령이라든가 사회적·정치적 위상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에 보면 과학기술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성과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세계수준대학 국책과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학기술계가 사심을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이달(9월) 중순에 개교하는 평양과기대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과기대 개교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현재 필요한 건물은 완성되었고 내부의 가구도 많이 들어갔습니



다. 상수도 공사가 자금조달 문제로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개교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또 연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4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4월 개학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처음에는 대학원생만 들어오게 되며 정보통신공학부, 농식품공학부, 산업경영학부로 시작하고 추후에 보건의료, 건축건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교수진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Q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밝혀주시시오.

내년 4월 평양과기대가 예정대로 개학되어서 포스텍 총장 직무 수행으로 4년 간 못했던 강의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장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강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Q 과학기술계에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하면서 포스텍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평소 하던 부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전문인 이전에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능성 사고를 근거로 시련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